

鄭蘊 流配漢詩의 楚辭受容考

高 定 佑*

目 次

- | | |
|------------|--------------|
| I. 머리말 | Ⅲ. 屈原의 楚辭 受容 |
| II. 鄭蘊의 生涯 | IV. 맺음말 |

I. 머 리 말

桐溪 鄭蘊이 살았던 시기(宣祖 2년 : 1569~仁印 19년:1641)는 당론이 가장 극심한 시기였다. 임진란 이후 大·小北의 분열로 세력이 강해진 北人은 光海君을 추대, 사회적 정치적 혼란의 절정기를 맞이했다. 혼란한 당쟁의 시기에 있어서 士大夫들은 권력의 핵심으로 진출하기도 했지만 君王으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당하여 王都에서 멀리 邊方이나 絶海孤島로 流配되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제주도 五賢의 한 사람인 鄭蘊은 光海君 때, 永昌大君이 폐위, 살해됨에 그 부당함을 상소하다가 제주도 大靜縣에 유배되었다. 그는 모순된 시대 상황 속에서 사대부의 신분으로 충간하였고, 10년이란 긴 유배생활을 창작적 계기로 삼아 많은 流配漢詩를 남겼다.

본 연구는 「桐溪集」 卷2에 수록된 桐溪 流配漢詩중에 屈原의 사상이나 생활

*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에서 얻은 共感과 作品的 表現形式과 詩的 內容의 受容樣相들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鄭蘊의 生涯

1. 生涯

桐溪의 生涯를 「桐溪集」卷1, 桐溪先生年譜를 중심으로 정치적 변화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5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1) 第1期 成長修學期(출생~19세) : 출생시부터 19세 鄉試合格時까지 學問修鍊過程

2) 第2期 初期活動期(20세~40세) : 壬辰亂의 발발과 임진란이 끝난 후 사적을 논하고 녹사제수 및 進士에 나가 활동한 시기

3) 第3期 出仕, 流配期(41세~55세) : 光海君 1년(1609) 光陵參奉을 제수 받아 出仕하고 司諫院 正言을 거쳐, 同王 5년(1613) 癸丑獄事에 副司直에 있으면서 永昌大君 사후 復職을 논하다가 濟州 大靜縣에 團籬安置된 시기

4) 第4期 後期活動期(56세~69세) : 유배가 풀린 후 仁祖 2년(1624) 刑曹參判을 제수 받은 시기부터 同王 15년(1637) 丙子胡亂 때 吏曹參判으로서 斥和論을 주장하다가 和議가 이루어지자 자진을 기도한 시기

5) 第5期 隱遁期(70세~73세) : 자살 실패 후 崇明主義로서 벼슬을 버리고 德裕山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他界할 때까지의 시기

2. 流配背景

光海君 5년(1613) 5월 金梯男이 官爵削奪되고 그해 6월 賜死되었다. 그후 조정에서는 가장 큰 禍根인 永昌大君을 처단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癸丑獄事가 시작된 지 한 달만에 조정의 빗발치는 여론에 의해 永昌大君의 官爵이 삭탈되고 庶人으로 폐하여 江華島로 유배되었다. 同王 6년(1614년) 2월 李爾瞻 등의 凶計로 강화부사 鄭沆을 시켜 永昌을 蒸殺하였다.

이에 同王 6년 2월 鄭蘊은 상소를 올려 鄭沆을 베이고 永昌大君 位號를 復位시킬 것을 청했다. 大怒한 光海君은 그를 처형도록 하였으나 重臣들의 의견에

따라 그해 7월 제주도 大靜縣에 園籬安置의 命을 받는다. 그후 仁祖 1년(1623) 4월까지 10년간 유형수의 신세가 된다.

Ⅲ. 屈原의 楚辭 受容

「楚辭」의 始源者 屈原(B.C 340~B.C 290)의 생애는 桐溪 鄭蘊의 생애와 意趣가 비슷하다. 군왕을 위해 열성으로 諫하는 屈原과 당쟁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랑곳 않고 直諫을 올려 光海君의 정사를 바로 잡고자 했던 桐溪다. 政治人이면서 문인인 이들은 時, 空을 초월하여 脈絡을 같이하고 있다.

屈原이 楚王에게 쫓겨난 슬픔과 憤慨, 이상적인 여인에 대한 동경, 고독감, 조국의 安危에 대한 危懼 및 그의 최후의 절망과 자살의 결심 등에 桐溪는 깊은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으며 동일화한 작품들이 다수 보인다.

古來로 정치인이나 문인들은 나라를 사랑했으나, 時運을 못 타서 참소를 만나 官界에서 쫓겨난다든지, 유배를 당한다든지, 현실을 도피하여 隱遁한다든지, 憤痛한 나머지 水中의 孤魂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屈原의 行迹을 추모하고 그 문학에 共鳴하여 「籬騷」體를 수용하거나 자신들의 심회를 서술한 사람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屈原의 풍부하고 화려한 文辭에 끌린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後世人들이 自己信念이 달성되지 못하고 정치의 불합리가 국가의 위기, 민족의 辛苦를 통절히 우려하면서도 자신은 불가항력일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屈原이 강하게 소생했기 때문이다.¹⁾

桐溪 작품에도 이러한 일면을 찾을 수 있다. 그는 강한 애국심으로 혼탁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상소를 올렸음에도 당파의 참소로 인해 군왕의 노여움을 사는 결과가 되었다. 추방당한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屈原의 생애 속에서 발견하고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던 것이다. 곧 「籬騷」는 屈原의 깊은 苦惱와 絶望의인 憂愁가 서려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桐溪에게는 심각한 인상과 憐憫을 안겨주었음을 다음 작품들에서 볼 수 있다.

1) 이창용; “매월당의 굴원수용양상”, 「국어국문학」91, 제27회, 국어국문학회, 1984.5, pp. 88~89.

次林樂翁韻

生涯隣鬼魅 생애는 鬼魅와 이웃하고
 身世任乾坤 신세는 건곤에 맡겼네
 已撫潘即鬢 이미 희여진 구렛나루를 만지다
 難招楚澤魂 楚澤의 혼 부르기 어렵네
 歸雲頻酒淚 돌아가는 구름따라 자주 눈물 흘리고
 埋劍未消冤 묻힌 칼 원통함을 다하지 못했네
 耳聾不求理 귀가 멀어 이치를 구하지 못하니
 愁聞蠻語喧 오랑캐 말이 시끄러이 들리는 것을 근심하네.

流配당한 자신의 생활을 鬼魅와 벗어나 乾坤이 맡겨 버리고 있다. 政治의 바른 뜻을 펴지 못한 지 여러 해이지만, 돌아가는 구름따라 눈물 흘리며 의지가 꺾인 자신의 원통함을 풀 길이 없다. 자연에 맡긴 신세이지만 당파에 휘말려 정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군왕이 근심스러울 뿐이다. 그의 좌절은 楚나라 屈原의 혼을 불러 호소하고자 하나 부르기도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뿐이다. 의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좌절과 우수를 「籬騷」의 전반부 內容에서 受容했다고 볼 수 있다. 「籬騷」 전반은 家系와 出生, 타고난 才能 그리고 자신은 임금을 도와 이상적인 정치를 하려 했으나 험뜯는 사람들로 인하여 실각당했으며, 임금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는 슬픈 처지를 哀訴하였다. 屈原이 자신의 위치를 실현할 길 없어 水中의 魂이 되었으니 자신의 심정을 달래줄 이는 屈原의 남은 혼뿐이라 여긴다.

屈原은 憂國忠君의 열정을 가진 詩人이었다. 美意識의 自尊과 忠貞不二的 節介를 가진 屈原에게 있어서 現實的 挫折은 더할 수 없는 悲哀였다. 詩人의 진취적인 애국정신은 정치적 좌절로 말미암아 忠君愛國의 열정으로 화한다.

種 芹

淺鑿窓前方寸地 창 앞 좁은 땅을 조금 파내어
 貯停滯水種青芹 고인 물에 미나리를 심은 것은
 區區不爲供朝夕 구구히 조식 찬거리 하려함이 아니라

得得莖長獻我君 즐기 길면 우리님께 바치려 함이네.

유배된 나그네의 고초를 안은 초라한 신세다. 민감한 外境에의 감정이입을 통해 桐溪가 바라보는 人生의 觀照, 자연에의 親和가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는 戀君에의 사상이 숨쉬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고독과 우수에 찬 유배생활을 뒤로한 채 날개를 활짝 펴지 못하는 자신의 좌절을 戀君之情으로 溶解하고 있는 것이다. 屈原의 「離騷」중에서도 후일을 생각하며 蘭, 蕙, 留夷, 揭車 등의 香草를 심어 가꿨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²⁾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꺾이고 말았지만 내 한 몸 이리된 것을 슬퍼하겠는가. 다만 악인들로 하여금 어진 신하들이, 마치 잡초로 향초가 거칠어지듯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애석할 뿐이다. 그렇지만 桐溪는 꺾일 것을 모르는지 미나리를 고이 심어님께 바치겠다는 충군을 보여준다. 屈原이 추방당한 심정에서 배태된 작품이어선지 香과 色을 느끼는 정서가 桐溪 역시 마찬가지이다.

司馬遷은 「史記」에서 「離騷」에 대해 “文章은 簡潔하고 言語는 微妙하며 뜻은 潔白하고 行動은 清廉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흙 속에 살면서 결백으로써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니 이같은 마음가짐은 일월과 빛을 다룬다 해도 좋을 것이다.”³⁾ 라고 하였다.

이같은 屈原의 군왕에 대한 충성심이나 청렴고결한 성격은 혼탁한 속세와 화합할 줄 몰랐다. 다음 桐溪의 작품에서 굴원의 뜻이 재현되어 나타난다.

初度日吟

孟陬貞斗柄	첫 봄에 북두성을 바로하여
庚日夜中央	여름밤 하늘 가운데 있네
暗合靈均降	영균이 내려옴과 합치되니
叨居紫府墻	외람되게 자부의 울타리에 살게 되었네
窮通略同異	궁하고 통함이 각각 서로 다르고
人物判賢狂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판단하네
惟有秋蘭佩	오직 가을 난초만이 고고함을 지녀
千年不改香	천 년 동안 향기를 고치지 않네.

2) 宋貞姬譯, 「楚辭」(I), 明知大出版部, 1985, p. 45.

3) 司馬遷; 「史記」, 景仁文化社, 1977, p. 623.

「靈均」은 屈平의 字, “原”의 字義로서 靈은 神, 均是 調(고르다)의 뜻으로 正則, 靈均이라 함은 屈原의 이름 “平”과 “原”의 뜻이 다 아름다운 것을 의미한다.⁴⁾ 「籬騷」 첫 편에 “皇覽揆余于初度 擘兮 錫余以嘉名 名余曰正則兮 字余曰靈均”라 하여 영균을 설명하고 있다.

頷聯의 紫府墻은 楚辭에 나오는 紫堦으로 자주빛 조개껍질로 깐 마당이다. 結聯의 蘭은 香草로써 충절을 지키는 군자를 뜻한다 하겠다. 이 작품에서 桐溪는 봄, 여름을 지나 영균을 만났으니 화려한 자단 울타리에 살게 되었다고 자신의 불우한 유배생활을 영균을 빌어 역설적으로 미화했다. 시대의 是非의 흐름과 賢臣과 狂臣은 道가 판단하는 것, 나는 오직 가을 난초의 고고함에 의지하여 향기를 잃지 않으리라는 忠節을 다짐한다.

屈原은 고고한 난초 향기를 몸에 감고 잡초와 섞이지 않는 청결함을 지닌 인물이다. 屈原의 香草意識은 「籬騷」에 “步余馬於蘭皋兮 馳椒丘且焉止息 進不入以離尤兮 退將復脩吾初服”라 하였다. 屈原은 평소에 길러온 忠, 正, 仁, 義의 행위로써 세상에 나아갔다가 버림을 받고, 그제야 잘못 든 길을 깨닫고 스스로 물러가 다시 수신하고자 했다. 높은 冠, 香草 등은 그의 고결한 정신의 상징으로 하여 四海 밖을 멀리 노닐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고고한 지조를 항상 염려해 온 누님 여수는 조정에는 惡草를 즐겨입은 小人들로 가득한데, 너만이 香草를 몸에 감고 멀리하는가. 조금 뜻을 낮추어 몸 보전하라 당부하나 평생 香草를 바꿀 그가 아니다.

屈原의 香草意識을 桐溪는 “惟有秋蘭佩 千年不改香”이라는 詩句를 통해 사상과 성격의 교류를 보여준다.

至月晦日

此月又云晦	이 달은 또 그믐이라
來春隔幾旬	오는 봄 몇순을 가리웠느냐
甲寅年向盡	갑인년을 향하여 기울었고
巳巳等添新	巳巳에 새로움을 더하였네
遲暮還丹術	노쇠하여 배 부리는 술책으로 돌아가려는데

4) 宋貞姬譯: 前掲書, p. 39.

蕭疎滿鬢銀 성겨 쓸쓸한 하얀 수염만 가득하네
 長沙愁太傳 장사에 귀양간 태부를 근심하며
 楚澤怨靈均 초나라 못에는 영균을 원망하네.

작품 내용으로 보아 桐溪가 위리안치된 지 벌써 한 해를 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孤囚의 몸이 되어 멀리 유배온 자신이 첫 해를 보내는 심정을 무엇에 비유해야 알맞을까. 다만 위로할 길 없어 오는 봄에는 노저어 갈 수나 있을런지 성긴 수염에 근심만 가득하다. 結聯은 대신들의 中傷謀略으로 長沙大傅으로 좌천되어 남으로 湘水를 건너다가 거기에 빠져 죽은 屈原을 생각하고 자신의 신세를 느껴보는 것이다. 洞庭湖 東南에 있는 長沙에 유배가서 방랑하던 屈原이 끝내 뜻을 못 이루어 楚澤에 몸을 던졌다니 桐溪 신세가 屈原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영균의 영혼만을 원망한다. “晦日”은 가장 어둠이 짙을 때로 이때 씨앗이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한겨울에 나온 씨앗이 봄과 함께 새싹이 돋는 것이다. 桐溪의 그믐날의 결심은 다음해 봄에는 꼭 이뤄 보려는 굳은 의지가 보인다.

이 작품은 「九歌」의 「湘君」과 통한다. 「九歌」는 楚나라 서쪽 南郢의 고을 泣木, 湘水 유역의 고유한 민간 제가를 屈原이 꽃겨난 몸이 되어, 이 지방에서 숨어살다가 가사내용이 비루함을 느껴 改作한 것이라 한다. 「九歌」는 귀신을 섬기는데 공경을 다할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품은 恨을 나타내는 동시에 君王을 諷諫한 것이다. 屈原이 頃襄王에 대한 忠君愛國의 情을 붙여 노래한 것이다. 湘君이 湘夫人을 부르는 것이므로 屈原이 流配地에서 애타게 그리는 頃襄王을 표현하였다. 桐溪는 「至明晦日」에서 내년 봄을 기다리는 심정과 君王을 그리다 자살한 영균의 혼을 위로하고 있다.

客舍橘林

童童張似蓋 무성한 枝葉은 우산을 퍼 놓은듯 하고
 密密散成帷 뽕뽕한 모양은 휘장을 이루었네
 翠實初含露 비취빛 열매는 이슬을 머금었고
 黃金竟滿枝 황금색이 되어 가지에 가득했네
 楊州包貢遠 양주에서 진상함이 멀고

楚客頌詞悲 초나라 나그네는 글 지어 슬퍼하네
願使邦人重 바라건대 방인으로 하여 조공 보낼 일을 거듭하여
毋令封植衰 진상 보낼 것을 쇠하지 않게 하소서.

桐溪의 五律로 유배지인 제주 경관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제주명산인 궤에 비유하여 자신의 忠信과 節介를 표백한 것이다. 頸聯의 楊州⁵⁾는 禹임금 때 궤 진상지로, 제주에서의 궤 진상을 양주의 그것과 흡사하게 표현했다. 궤는 남국의 특산으로 淮水를 건너 北地에 옮겨 심으면 탕자가 된다고 한다.

「九章」은 屈原이 江南의 들에 쫓겨난 뒤 군왕을 생각하고 나라를 근심하여 시름을 누를 길 없어 지은 것이다. 이 중 「橘頌」은 屈原이 자신의 志節을 남달리 뛰어난 궤에 비유하여 楚國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옮겨갈 수 없는 심정을 말한 것이다. 푸른 열매에 머금은 이슬은 透明, 美麗한 意象의 표현으로 시인의 脫俗의 性格과 청결한 인격을 더욱 강조해 준다. 翠實이 黃金이 되어 나라에 진상 보내려 하니 屈原의 슬픈 노래가 더욱 서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진상할 일을 소홀히 말라는 忠君을 桐溪는 나타내고 있다. 궤의 덕을 찬양하며 자신을 궤에 붙여 스스로 절의를 지키는 고결한 덕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聞潮

海苦有何不平事 바다신은 무슨 불평이 있길래
其聲轟嘩如怒嘖 은 소리를 질러 화난 것과 같은가
逐臣入海已四載 쫓겨난 신하는 바다로 돌아와 이미 네 해를 보냈는데
聞之不怕丹雘巾 그 소리도 두렵지 않고 다만 수건을 적시네.

起句의 “海苦”은 楚辭의 「遠遊」篇 “分海苦無馮夷”의 新意다. 海苦는 바다신이다. 바다신은 무슨 불평이 있어서 파도를 요란스럽게 하는가. 그러나 逐臣

5) 楊州; 제주시 중심에 위치한 觀德亭은 건물 그 자체도 그렇지만 그려진 그림으로 유명하다. 여기에 있는 벽화들 중 하나가 「醉過楊州橘滿軒」라 하였다. 즉 杜甫가 술이 취하여 驕子를 타고 양주땅을 지나가는데 美妓들이 그의 모습에 반하여 나무에 달린 궤를 따 던지는 그림이다. 그러나 두보는 태연히 양주땅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궤이 교자에 가득함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 건물은 조선 성종때(1486) 지어져, 고종(1882)까지 수차에 걸쳐 重修되었으며 1959년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 되어 바닷고장으로 들어온 지 네 해를 보내는 桐溪로서는 무서움보다는 눈물이 먼저 수건을 적신다. 유배온 지 4년이 지났어도 서울에서는 소식이 없는 혼란하고 고독한 자탄을 屈原의 「遠遊」에 비유했다.

屈原의 「遠遊」는 어진자를 질투하는 혼란한 세속으로 말미암아 궁박하기에 이른 자신의 현실을 비탄하다가 세속을 초월하여 長生不死의 선인이 되어 우주 밖을 노니는 일을 노래한 것이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찬 세속의 환란을 피하여 신선에 놀던 일을 부러워하고 덧없는 세월을 탄식한다. 이에 屈原은 공상을 타고 桐溪는 자신의 현실에 깊이 침잠하여 한탄하기에 급급해 있으니, 바다신을 빌어 아무리성낸 소리로 울부짖게 한들 잠시라도 시름을 잊을 심정이 아니다.

屈原은 추방되어 江湘의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우수와 탄식으로 그 모습이 아주 변해 있었다. 이때 세상을 피하여 강가에서 고기를 낚으며 혼연히 혼자 즐기고 있던 한 어부가 川澤의 근방에서 屈原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겨 물었던 것이 서로 응답하기에 이른 것이다. 뒤에 楚의 屈原을 생각하여 그 문답의 「辭」를 엮어 전한 것이 「漁父」이다.

四季花

舊葉凋零新葉生 묵은 잎은 지고 새 잎 자라서
 暫時憔悴忽敷榮 잠시 마른듯하다 홀연 번성하였네
 滿枝洪藻輝朝日 붉은 꽃가지 가득 아침 햇살 비추니
 香氣紛紛襲戶庭 분분한 향기는 집뜰에 가득하구나.

위리안치된 뜰 안에 四友가 화창하여 계절마다 푸르렀다. 비록 유배하여 “顔色憔悴 形容枯槁” 「漁父辭」 한 자신이지만 자신을 닮으려다 다시 번성하여 紛紛한 香氣를 발하니 자연에 벗하여 살아가고자 한다. 屈原은 방랑하면서 자연과의 交友를 미처 경험하지 못한 때에 桐溪는 이미 四季花를 벗하였으니 유배라는 꼭 같은 상황에 놓인 그들이지만 다른 분위기를 안겨준다.

謝季牧使送秋露全鱸

酒滴金盤露 술방울은 금소반에 영롱하고

看分斂室璣 안주는 바다 가운데 진미로다
 靈均苦逢此 영균을 여기서 만난 듯 하니
 骨作獨醒人 한가로이 홀로 깨인 사람 되었네.

영롱하고 고고한 향수를 지닌 桐溪의 절의를 보여준다. 바다 속 깊은 곳에서 구한 진귀한 안주와 술을 보냈으니 제주 大靜縣에서 영균을 만난 듯하다. 문득 혼자 깨인 사람이 되었음을 안다. 結句는 바로 「漁父」의 “屈原曰舉世皆濁我獨清 衆人皆醉我獨醒 是以見放”이라는 屈原의 청렴한 사상을 수용하고 있다.

避世隱身하여 강가에서 釣漁自樂하는 어부에게 응답하는 말이다. 혼탁한 현실의 와중에도 물들지 않고 오롯함을 지녔던 桐溪는 당쟁으로 썩어가는 세태를 바라보며 끝내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 屈原의 인용구를 반복하다가 逐臣의 신세가 되었으니 더욱 屈原을 동경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는 혼탁한 塵世를 걱정하며 유배지의 어려운 삶을 잊고자 잠시 屈原을 따라 脫俗隱遁의 심정으로 몰입해 본다.

養兒馬

賤價求房種 싼 값으로 구한 망아지
 何望冀北空 어찌 북녘에 타고 가길 바라리요
 形疲宜失相 형용은 피로하여 얼굴빛을 잃었으니
 蹄窄未追風 말발굽은 바람을 따르지 못하네
 駑駿非天品 駑駿은 본래 타고난 것이 아니거든
 調良在養切 단련시켜 길들임에 있네
 殷勤孔覓牧 정성되에 말을 먹여
 偕入故山中 함께 고향산천으로 돌아가려다.

桐溪의 歷史觀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싼 값으로 산 망아지를 어찌 북쪽 하늘까지 타고 가길 바라겠는가마는, 駑駿이란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니라 단련시켜 길들이기에 달렸으니, 정성껏 길러 고향산천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한다.

「九辯」은 屈原의 제자 宋玉의 작품이다. 그는 忠直으로 쫓겨나 충심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스승을 애석히 애겨 읊은 것이다. 「九辯」章 중에 屈原은 천리마는 덜 좋다고 아니 타고 노둔한 말은 잡고 의젓하게 길을 간다고 하였다. 宋

玉은 세상에 천리마는 있지만 말 부리는 사람이 없으니 천리마가 미련없이 훌훌 떠나버렸다고 슬퍼했다. 천리마같은 賢臣들은 몸을 숨겨 있으니, 덕을 갖춘 임금이 賢士를 구해야만 비로소 충신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桐溪의 兒馬는 자신이다. 兒馬를 천리마로 기르는 생활을 자신의 유배기간이라 여기면서 덕을 갖춘 어진 임금이 부를 때까지 자신의 덕행을 쌓고 타고갈 말을 훌륭히 키운다는 것이다.

屈原은 公平無私하여 덕있는 자에게 능력있는 자를 보낸다는 對天觀을 가지고 있다. 善惡因果論의 歷史觀을 가지고 현실을 조명한 것이다. 桐溪 역시 이런 歷史觀을 지녔기에 당시 사회의 是非가 전도된 양상을 통탄하면서 屈原이 노둔한 말을 타고 의젓이 떠나듯, 떠나온 자신을 언젠가는 천리마를 타고갈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憂國忠君의 절개를 고수하는 강직한 정치가이며 문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IV. 맺 음 말

이상 桐溪는 楚辭의 表現形式과 詩의 內容 및 그의 사상이나 생활에서 공감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屈原에게서 人間의인 感化 및 詩文活動에 있어서 많은 示唆를 받았다고 본다. 이는 한걸음 나아가 유배문학이 한국문학 발전에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다고 하겠다.

유배초기 절망적인 감정 상태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屈原의 悲憤感慨하는 문학사상과 天道의 歷史觀을 통하여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는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문학은 거의가 作詩餘興에 의한 산물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 유배라는 환경에 놓인 桐溪는 군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시를 쓴다는것은 作詩餘興이 아니라 절실한 자기목구의 발로라 하겠다.

三綱五倫을 철저히 실천하면서 살아 온 유학자요, 정치가이며 문인인 그의 작품은 道學의 실천에 소홀하지 않았으며, 詩의 본질로서의 道와 氣를 정신적 활력으로 삼아 詩의 氣象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겠다.